

6/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도입과 정주화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권향숙



권향숙(權香淑) 동북아 조선족의 이동과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08년 3월 일본 조치대학 대학원 외국어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오사카 출생의 재일코리안 3세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입법조사원, 한국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거쳐 현재 와세다대학 지역·지역간연구기구 초빙연구원과 센슈대학, 게이센여자대학, 도요대학 강사를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 『移動する朝鮮族』(2011), 공저로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の経験と現在』(2013), 『アジア学のすすめ』(2011), 『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国際ネットワーク』(2006)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1. 문제 제기

2015년 12월 말 현재 일본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코리안들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계 이주자는 20세기 초, 대한해협을 건넌던 남한 출신자의 자손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 해방 직후의 혼란기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전반에 도일한 한반도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 출신자들이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중국조선족(이하 조선족)¹은 바로 중국 동북지역 출신자로 간주한다. 한국계 이주자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접적인 도일 경로를 따랐다면, 조선족의 경우는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한 다음 일본으로 갔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² 한편 도일 경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본의 한국계 이주자들의 역사적 배경에는 20세기 초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의 분단 및 냉전체제의 확립, 그리고 탈냉전과 글로벌화의 진전을 근현대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함축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³

가령 한국계 이주자를 디아스포라로 칭한다면 이 개념에 관한 사프란(W. Safran)의 널리 알려진 정의,⁴ 즉 ‘국외’로 추방된 소수집단의 공동체를 ‘구디아스포라’로, 광범위한 지구 차원의 인구이동 및 분산거주 현상을 ‘신디아스포라’로 명명하고 분석하는 재일조선인 연구⁵의 시각은 근현대 조선

1 조선족이란 오래전으로는 17세기 이후부터 그러나 주로 19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했던 조선인의 자손들이며, 한반도에서 육로를 따라 구 만주지역으로 이동하고 정착하여 해방을 맞았다. 조선족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56개 민족 중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규정지어졌다. 한국사회에서는 이 호칭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어 적지 않은 논란과 비판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소수자’로 규정지어질 일본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호칭에 내포된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받아들여왔던 ‘조선족’이란 호칭을 사용할 것이다.

2 도일의 배경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이동 경로만을 따지면 일본에 정착한 ‘이탈주민’ 역시 북한에서 중국 동북지역을 거쳐 일본으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총수는 공식 통계가 없지만, 다음 세미나(와세다대학, 『現代韓国・朝鮮을 둘러싼 課題와 展望』 제10회 「北朝鮮離脱住民の適応課題」 2012. 12. 17)에서 200명 정도라는 숫자가 보고되었다.

3 玄武岩, 『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 メディア・移動の歴史と空間』, 北海道大学出版会, 2013.

4 W. Safran,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itional Studies* 1(1), 1991, p. 83.

5 김귀옥, 「분단과 전쟁의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0, 54~56쪽;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 이동과 경계 정치」, 『사회와 역사』 91, 한국사회사

족의 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즉 근현대 조선족의 이동에는 탈식민지주의를 반영한 ‘구디아스포라’의 문맥은 물론 글로벌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신디아스포라’의 측면도 확인되며, 전자와 후자는 조선족의 이주와 재이주 역사의 마디마디에 얹혀 있다. 단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역사를 디아스포라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은 식민지 시대 불가피한 이동의 측면이 농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된 이후 중국 공민으로서 규정지어진 현대 조선족 사회를 디아스포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의 관점을 원활하게 적용하려면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⁶

디아스포라에 내포된 의미를 살리면서 현시대 조선족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관점 중 하나가 바로 ‘가족 분산’이다. 가족 분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면 조선족의 이동과 실태, 그리고 그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족의 이동현상을 인구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권태환은 인구이동 및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조선족의 공동체 해체를 지적했다.⁷ 박광성은 선행연구의 시각을 이어가면서 중국 동북3성의 인구유출과 동시에 인구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주지역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분석도 함께 시도했다. 박광성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 한중수교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족이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분산 거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가족관계를 포함한 경제활동 및 공동체가 단절되지는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기존 지역의 민족사회가 탈지역적 네트워크화로 인한 초국가적 생활세계를 형성하면서 ‘초국가적 사회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다.⁸

학회, 2011, 65쪽.

6 权赫秀, 「只是历史的形成原因而非现实的特征: 离散(diaspora)视角的中国朝鲜族历史新论」, 『朝鲜族研究学会誌』 第3号, 2013, 6~7쪽; 권혁수, 「디아스포라적 시각으로 본 조선족 역사의 새로운 해석」, 『朝鲜族研究学会誌』 第3号, 2013, 9~17쪽.

7 권태환 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8 박광성, 『세계화 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 변화』, 한국학술정보, 2008; 「초국적 인구이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중국에 시장경제가 침투하게 되면서 조선족의 이동 및 그로 인한 가족 분산이 시작되었는데, 박광성은 이 현상을 공동체의 해체가 아닌 네트워크화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인구유출에 의한 농촌사회의 구조변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린메이(林梅)의 시각과도 유사하다.⁹ 즉 기존의 조선족 집거지 지역의 민족 사회를 중심으로 이동이 진행되는 ‘이전’의 농촌 공동체와 ‘이후’의 도시 커뮤니티를 중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기존 지역과의 단절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을 중시하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론을 펼친다. 이 글 역시 인구이동이 곧 공동체 해체와 붕괴로 이어진다는 시각이 아니라, 재편성이자 재구축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도입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분산의 국면과 함께 재결합의 양상을 포착하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붕괴와 세계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재편성이란 구조변화에 대한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조선족의 이동을 분석할 때 동아시아의 글로벌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조선족의 일본으로의 이동은 전후 유럽의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화된 이민 ‘4단계설’¹⁰이나 이주와 더불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가족의 계층화 경향에도 어긋난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족 분산의 실태파악과 실증분석을 통한 사례연구의 축적을 통한 끊임없는 이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족의 도일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왔다. 예컨대 조선족의 문화자본에 주목하여 도일현상을 설명하는 연구, 일본사회의

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학회, 2010.

9 고향(homeland)에 남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전략적 활동과정을 다룬 린메이는 인구이동과 인구감소 등 농촌공동체 해체를 부정적 측면에서만 언급해왔던 선행연구의 단점은 “인구유출에 의한 농촌사회의 구조변화”를 파악하는 시점의 미흡함에 있으며, 가족관계에 한정하여 “부재”가 거론되어온 결과라고 분석한다. 林梅, 『中国朝鲜族村落的社会学的研究: 自治と権力の相剋』, お茶の水書房, 2014.

10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New York: Guilford, 2009.

구조적 관점에서 조선족의 이동을 고찰한 연구, 일본으로의 이동과 에스닉 커뮤니티 양상을 조망하여 글로벌화에 따른 조선족 독일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한 연구,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결부시켜 고찰한 연구 등¹¹이다. 하지만 조선족의 독일과정을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그 연속성 속에서 관찰하는 시점은 결여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내 조선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과정을 조명하고, 선행연구에서 간과해온 부분을 보완하며, 동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조선족의 가족 분산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분산 거주하는 조선족 가족의 인터뷰와 일본 내 조선족 단체의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표 1>의 조사협력자 25명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3~7번의 지속적인 인터뷰 조사(2012. 2~2015. 9)의 일부가 본문의 구술자료다. 인터뷰 대상자는 독일 1세대를 기준으로 부모세대(상위세대)와 자녀세대(하위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사협력자 총 수는 <표 1>의 세 배 이상일 것이지만 편의상 첫 번째 조사에서 만난 조사협력자만을 적었음을 밝힌다. 인터뷰 장소는 조사협력자의 주택, 직장, 그 부근의 커피숍이나 음식점,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원, 학교, 공적 시설 등이며, 이메일, SNS,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는 1회 당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로 한정된 경우도 있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혹은 조사협력자 주택에서 숙박하며 밤새도록 들은 경우도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에서 사용한 데이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첫 조사 당시 협력자 연령대가 30대에서 70대까지 폭넓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는 2012년 이후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조사협력자의 지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11 권향숙, 「조선족의 독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자본의 영향」, 『미드리』 6권,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 「일본사회와 중국조선족: 디아스포라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기초적인 분석」, 『미드리』 7권,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 「조선족의 일본 이주와 에스닉 커뮤니티: 초국가화와 주변의 심화 사이의 실천」, 『역사문화연구』 4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관한 시론: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 『일본비평』 8호,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 2013.

〈표 1〉 조사협력자들의 기본사항¹²

협력자	거주지 ¹⁾	연령	성별 ²⁾	국적 ³⁾	직업	가족 ⁴⁾	도일과 관련된 비고	
A	중 국	연지	70대	M	중국	연금생활	자녀나 형제가 유학 후 일본에서 취직, 혹은 결혼 이민 배 우자로 도일	부 모 세 대
B		허룡	70대	M	중국	연금생활		
C		허룡	70대	F	중국	연금생활		
D		연지	60대	M	중국	자영업(판매)		
E		연지	60대	M	중국	자영업(언론)		
F		연지	50대	F	중국	가정주부		
G		룽징	50대	F	중국	가정주부		
H		연지	40대	M	중국	자영업(판매)	본인이 일본으로 유 학 후 중국으로 귀 국, 혹은 형제가 일본으 로 유학 후 취직, 창 업	
I		연지	40대	M	중국	자영업(판매)		
J		연지	40대	F	중국	자영업(어학)		
K		연지	40대	F	중국	가정주부		
L		연지	30대	F	중국	공무원		
M	일 본	지바	50대	M	중국	자영업(제조)	본인이 유학 후 일 본에서 취직, 창업	도 일 1 세 대
N		도쿄	40대	M	중국	자영업(교육)		
O		도쿄	40대	F	중국	자영업(교육)		
P		도쿄	40대	M	중국	자영업(음식)		
Q		지바	40대	F	중국	가정주부		
R		도쿄	40대	F	중국	자영업(어학)		
S		도쿄	40대	M	중국	회사원(교육)		
T		도쿄	30대	M	중국	자영업(음식)		
U		가와 사키	30대	F	중국	회사원(영업)		
V		도쿄	30대	F	일본	회사원(영업)		
W		가와 사키	30대	F	중국	자영업(음식)		
X		도쿄	40대	M	중국	자영업(정보)	IT기술자로 도일 후 창업	
Y		도쿄	40대	F	일본	자영업(음식)	결혼 이민 배우자로 도일 후 창업	

주: 1) 2015년 12월 현재 거주지 기준. 본인이나 부모가 한국에서 노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로 표시.

2) 여성은 F, 남성은 M으로 표시.

3) 중국국적 보유자면서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로 표시.

4) 조사협력자의 가족(부모, 자녀)의 거주 국가를 표기. 기타 가족(조부모 및 손자, 손녀)은 () 안에 기입.

12 権香淑, 「中国朝鮮族の移動する文化とコミュニティ: 跨境的生活に埋め込まれた親族ネットワーク」, 122 쪽에서 제시한 〈표 4〉(2012. 2~2014. 2)의 데이터와 그 이후 지속적으로 2015년 9월까지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이 글의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채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협력자의 자녀, 혹은 부모도 인터뷰를 하고 또 다른 가족이나 친족을 소개받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2015년 현재 데이터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¹³ 둘째, 조사협력자 중 열다섯 가족이 3개국(한중일)에, 여덟 가족이 4개국(한중일미)에, 두 가족이 5개국(한중일미러, 한중일미영)에 거주하고 있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가족 분산의 실태를 한눈으로 알 수 있다. 즉 본 데이터 자체가 가족 분산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첫 조사 당시 중국에 거주하는 협력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일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도일 경험자라는 점이다. 첫 조사 당시의 거주지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일본에서 인터뷰를 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 넷째, 중국 국적 보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첫 조사 당시에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표 1>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 상황을 반영했다.

이 글의 2절에서는 조선족의 이동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위치와 구도를 확인하고, 3절에서는 가족 분산의 관점에서 도일 1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의 조선족사회 구성과 부모세대의 특징을 파악하며, 4절에서는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 조선족의 이동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

2010년 실시한 중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총 183만 929명으로 파악된다.¹⁴ 지역별로 지린성(吉林省) 104만 167명(56.81%),

13 이 글은 조선족의 출신지역인 중국 동북3성과 이동지역인 일본 및 한국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일본의 조선족단체 활동의 참여관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다음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계승하며 진행했다. 權香淑, 『移動する朝鮮族: 에스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彩流社, 2011; 권향숙, 신종원 옮김, 『이동하는 조선족: 소수민족의 자기통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4 박광성, 「2010년 조선족인구통계분석」(朴光星, 肖人夫, 「二〇一〇年全国人口普查: 朝鮮族人口统计分析」) <http://ckyw.com/blog/read/piaoguangxing/133559> (2015. 12. 23 검색); 鄭信哲, 『朝鮮族』, 中国

헤이룽장성(黑龍江省) 32만 7806명(17.90%), 랴오닝성(遼寧省) 23만 9537명(13.08%)으로 동북3성을 모두 포함하면 160만 7510명(87.79%)으로, 조선족의 전통적 집거지인 동북3성에 약 90%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이외에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한국에 2015년 현재 약 80만 명이 체류하고 있음¹⁵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호구(호적)에 기초한 기록상의 통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의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방법은 찾기 어렵지만, 조선족의 거주지는 중국의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및 일련의 시장경제화 정책에 따라 중국의 연해 도시 및 대도시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러시아 등 해외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조선족의 이동은 초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왔다.¹⁶ 첫째, 중국 국내의 각 도시에서 김치행상(보따리 장사), 둘째, 동북3성의 각 도시와 수도 베이징에서의 조선요리점 경영, 셋째, 중국 국내의 각 도시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 넷째, 친척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취업이다.¹⁷ 아울러 다섯째 유형인 일본 유학이 있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 온 유학생 수는 중일수교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제도적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늘어났다. 중국인 유학생 중에 조선족에 관한 통계는 찾기 어렵지만, 문헌상 확인되는 바

人口出版社, 2012, 38~48쪽; 朴美兰, 『民族學視野下的延邊朝鮮族人口問題』, 民族出版社, 2013.

15 한국법무부가 발표한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중 중국동포는 64만 7805명으로 한국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인(한국계) 14만 7996명(한국국적취득자 7만 3998명, 혼인귀화자 3만 4678명, 기타 귀화자 3만 9320명)을 합하면 79만 5801명으로 거의 80만 명에 달한다. 2010년 중국 인구조사에서 중국 내 조선족이 약 183만 명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내 조선족 3명 중 1명은 한국에 있는 셈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월보(2015. 11)」 http://www.moj.go.kr/doc_html/attach/imm/f2015//20151223244011_1_1.hwp.files/Sections1.html(2015. 12. 23 검색) 및 행정자치부, 「2015년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2015. 12. 23 검색).

16 韓景旭, 「中国朝鮮族にみる村の生活: 吉林省星火村の調査報告」,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21(3), 1997, 593쪽.

17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에 관한 이주와 현황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바람. 吳泰成, 「中国同胞から「朝鮮族」へ: 1970年代半ばから1990年代までの朝鮮族の韓国への移住過程を中心に」, 『朝鮮族研究学会誌』 第3号, 2013; 金英花, 「韓国における中国朝鮮族の出稼ぎの変容: 出稼ぎの長期化と定住化傾向」, 『朝鮮族研究学会誌』 第3号, 2013.

로는 1983년 방문교수 형태의 국비유학생¹⁸을 필두로 하여 사비유학도 가능해짐에 따라 조선족의 일본 유학의 길이 열렸다. 중국에서도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명문대학의 극소수 엘리트층인 조선족의 도일¹⁹에 이어 사비 일반유학생의 도일이 시작된 것은 오늘날 조선족의 일본행을 이야기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조선족의 일본행이 가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서서히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진 한중수교로, 조선족의 한국행이 본격화되었다. 일부 교수직이나 연구원, 대학원생의 특권이던 외국행(일본행)이 이제는 친족 방문, 노동이주, 결혼이주 등의 한국행이 가능해져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모는 한국에서 돈 벌고 나는 일본에서 유학생할”을 하는 상이한 이동이 서로 다른 세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한 가족성원 안에 다른 형태의 이주 경험자나 이주 ‘예비군’이 공존함을 의미한다. 언뜻 보기에 특이한 사례로 보이지만 조선족의 경우 이미 일반화된 사회적 풍경이다. 예컨대 ‘합리적인 개인’을 상정하여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배출-흡인이론에서는 종종 이민의 출신국과 이주국의 두 지역 사이를 기점으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한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성원들의 이동을 동시에 보게 되면 중국의 시장경제화에 따른 배출요인은 그다지 변동이 없으나, 흡인요인으로서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이동주체를 보면 부모와 자녀, 형제간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일 뿐,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조선족의 실천적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족의 신속한 해외 진출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다언어 구사능력,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외국과의 접촉 기회가 많았던 점, 한국기업

18 趙鳳彬, 『東北アジアを生きる: あるコリアン系中国人の「三国志」』, 創言社, 2003.

19 국비, 사비를 불문하고 1980년대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밟아서 도일한 엘리트층의 속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조선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葉進, 「在日中国人留學生の推移と現状」, 『季刊中国研究』第18号, 59~70쪽.

및 한국인 네트워크와의 연계, 한국에서 부모세대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²⁰ 특히 ‘한국과의 연결고리’ 요인은 일본행을 선택한 조선족 청년들의 학비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부모세대의 한국 내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한국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귀향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¹ 즉 조선족 청년들에게 한국은 자신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부모의 노동생활 현장이기도 하고, 설이나 추석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친족이 모이는 곳이자 ‘새로운 고향’으로 되어 가는 추세다.

한국과 일본의 조선족 정착과정에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즉,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은 비숙련노동자와 결혼이민 배우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조선족은 유학을 목적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경우가 적지 않다.²² 예컨대 <표 1>의 일본 거주자 13명 중 유학 목적이 아닌 2명(X씨는 전문직 이주, Y씨는 결혼 이주)을 제외한 11명(M, N, O, P, Q, R, S, T, U, V, W 씨)이 유학 후 일본에서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했다. 또한 중국 거주자 12명 중 부모세대 6명(A, B, C, D, F, G 씨)의 자녀가 일본으로 유학한 후 취직 혹은 창업하였고, 나머지 5명(H, I, J, K, L 씨)은 본인이 유학을 한 후 중국으로 귀국한 경험이 있거나 형제가 일본으로 유학한 후 취직 혹은 정착을 했다. 즉 조사협력자의 스물 두 가족의 구성원이 유학을 목적으로 도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절에서 보듯이 1990년대 전반에 유학한 조사협력자를 제외한 열일곱 가족은 부모세대가 한국에서 노동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이 일본에 유학한 사례다. 조선족 유학생들이 종종 말하는 “형은 상하이에서 비즈

20 배규식 외,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75쪽.
https://www.kiep.go.kr/skin.jsp?bid=pub_main_view&grp=publication&num=185938 (2015. 12. 23 검색)

21 趙貴花, 「高學歷中国朝鮮族の移動: 先を見つめる子育てとハイブリッド・アイデンティティ」, *Review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37, 2012, pp. 51~52.

22 権香淑·宮島美花·谷川雄太郎·李東哲, 「在日本中国朝鮮族の実態調査」, 『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国際ネットワーク』, アジア経済文化研究所, 2006.

니스, 부모님은 한국에서 노동, 나는 일본에서 유학생활동...”이라는 이 문구는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조선족사회와 가족 분산의 실태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일본의 조선족은 여전히 출입국통계상에 정확히 명기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수자’다.²³ 논문이나 보도에서는 재일조선족의 총수가 5만에서 10만 명으로 소개되고 있다.²⁴ 하지만 이 폭넓은 추정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조선족 총수를 추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역사는 사반세기 이상을 헤아리고 있다. 이주 초기에 극소수의 유학생들이 수도권 부근에서 소규모의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했다면, 2015년 현재 조선족사회는 수도권 밖의 대도시인 오사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²⁵ 일본 각지에서 크고 작은 단체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그 다양화, 계층분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 출생의

23 한국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재일동포의 총수는 85만 5725명(재외동포 총수 718만 4872명 중 중국 258만 5993명, 미국 223만 898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로 파악됨)이다. 「2015 재외동포현황」 [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2015. 12. 23 검색\)](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2015. 12. 23 검색)). 이 안에는 거의 조선족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미 적지 않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조선족의 도입은 기본상 중국국적의 여권을 소지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015년 6월 현재 ‘국적 및 지역별체류외국인통계’ 중 ‘중국’이 65만 6403명, ‘한국·조선’이 49만 7707명으로 이 속에는 적지 않은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체류가 장기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중국’ 및 ‘한국·조선’에서의 과거 10년(2005~2014)간 귀화자 통계의 귀화자 수(중국 4만 806명, 한국·조선 6만 8795명) 속에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http://www.moj.go.jp/MINJI/toukei_t_minj03.html (2015. 12. 23 검색)

24 5만이란 숫자는 일본이 조선족에 관해 처음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2005년 당시 동북3성 출신 체류외국인의 통계를 기준으로 제시된 추정치다. 権香淑·宮島美花·谷川雄一郎·李東哲, 「在日本中国朝鮮族実態調査に関する報告」, 『中国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国際ネットワーク: アジア人アイデンティティを求めて』, アジア経済文化研究所, 2006. 10만이란 숫자는 일본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 류경재 소장이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서 언급한 숫자다. 2010년 12월 24일 「재일 조선족엘리트들 힘 있는 군체로 부상」, 『동북아신문』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6> (2015. 12. 23 검색)

25 金花芬, 「朝鮮族の私からみたコリアタウン」, 猪飼野の歴史と文化を考える会 編, 上田正昭 監修, 『ニッポン猪飼野ものがたり』, 批評社, 2011; 蔡春花, 「在日本中国朝鮮族のコミュニティについて: 〈在日本中国朝鮮族関西友好会〉の活動を例に」, 『国際人権ひろば』, No.110(2013. 7) <http://www.hurights.or.jp/archives/newsletter/section3/2013/07/post-214.html> (2015. 12. 23 검색)

제2세대가 등장하면서 차세대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논의 차원을 벗어나 실제로 한글 주말학교를 개강하거나 운영하고, 주로 조선족 자녀를 위한 민간 학동클럽(学童クラブ)²⁶을 설립하여 비즈니스로 삼는 등 차세대 교육을 위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족사회의 다양화, 계층분화, 차세대의 등장과 교육에 관한 실천을 배경으로 가족의 모습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에 앞서 재일조선족사회 구성에 대해 언급한 다음 기사를 인용한다.

재일본 중국조선족사회는 지난 세기 80년대 말 류학생으로 시작되며 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류학붐에 이어 일본기업이나 재일본 중국조선족기업의 IT분야 기술자모집에 의한 대거 진출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류학생 가족과 IT기술자들의 가족들까지 합세하면서 재일본 중국조선족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소개에 따르면 재일본 중국조선족의 신분구성은 대학원생(석사, 박사 과정)과 학부 재학생이 가장 많아 거의 반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IT기술자를 포함한 회사원들이고 그다음 차례로 서비스종사자, 기업경영인, 연구원과 대학교수이다. 지역분포로 보면 도쿄, 요코하마/시즈오카, 찌바/사이타마, 오사카/코베, 나고야지역, 토호쿠지역, 규슈/시고꾸 등이며 현재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재일중국조선족이란 모집단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분구성 비율에 관한 기술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위 인용문

26 주말학교에 대해서는 <재일조선족여성회>가 운영하는 샘물어린이학교를 참조 바람. <http://www.ckwomen.com/>(2015. 12. 23 검색) '학동클럽'(보호자가 취업 등의 이유로 방과 후에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생활과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아동건전육성사업의 하나)의 제도에 맞는 민간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우현교육학원'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http://www.ukenkyoiku.jp/index.html>(2015. 12. 23 검색)

27 각주 24에서 언급한 2010년 12월 24일 「재일 조선족엘리트들 힘 있는 군체로 부상」, 『동북아신문』에서 인용함.

중의 구성요소(대학원생과 대학생이란 학생 신분, IT기술자를 포함한 회사원, 서비스종사자, 기업경영인, 연구원 및 대학교수)는 본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사회인으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일본거주자 중에는 일반 회사에 취직한 후 현재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S씨, 번역회사를 경영하는 R씨,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개인 가게를 오픈한 W씨, 교육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하는 O씨, 이미 자신의 음식점을 열어 다음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P씨, 기업을 운영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M씨,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외국계 기업으로 전업한 U씨, 유학과정에서 얻은 인맥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한 N씨, 아르바이트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기에 이른 T씨,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가 영업을 시작한 V씨가 있다. 또한 유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도입한 경우에는 IT기술자이자 기업경영자인 X씨와 결혼이주자인 Y씨가 있다.

이들의 도입 연도를 크게 나누면 1990년대 전반(S, O, M 씨)과 후반(R, W, P 씨), 2000년대 전반(Q, V, U, Y, T, X 씨)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소수의 엘리트층이나 일본사회와 연고가 있는 유학생의 특별한 도입이 1990년대 전반에 있었다면, 1990년대 후반은 본격적인 일본 유학 붐으로 인해 대학원 진학과 여러 계층의 유학생의 도입이 있었다. 이때는 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로 좀 더 많은 유학생이 일본인의 보증 없이 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입할 수 있게 된 시기다. 2000년대 전반에 들어서서는 1990년대 도입한 유학생이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등장하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과는 전혀 다른 행로를 거쳐 IT기술자들의 또 다른 형태의 도입이 관찰되면서 조선족사회의 다양화가 촉진되어갔다.

조사협력자들의 도입상황을 시대적 구분에 맞게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1990년대 전반에 유학한 조사협력자(S, O, M 씨)의 부모들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1993년에 도입한 헤이룽장성 출신 S씨(1960년대생, 남성)는 부친의 권유로 한족학교를 다녔다. S씨는 중국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소수민족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이라고 이야기한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남한, 러

시아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 만나기도 했지만 자신이 외국나들이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미 중국사회에서 간부로 일했고 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점도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했다. 1991년에 도일한 랴오닝성 출신 M씨(1960년대생, 남성)는 중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여 간부로 일하던 중 1989년 천안문(天安門) 사태가 터졌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일하던 M씨는 천안문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에 실망했다. 예전부터 소수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던 T씨는 일본행을 택했다. 양부모들은 한국에 사촌들이 있어 한중수교 이후 몇 번 친족방문으로 한국에 왔다 갔지만 생활하기에는 나서자란 중국이 편했다. 공무원 퇴직 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때라, 먹고 살기에 빠듯하지 않을 정도의 평온함이 보장된 중국에서의 생활을 바라고 있었다. S씨나 M씨보다도 젊은 나이로 1994년에 도일한 지린성 출신 O씨(1970년대생, 여성)는 교육 간부직으로 일하던 부친의 권한과 인맥 덕분에 도일이 가능했다. 물론 학비 때문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일본에서 체험한 모든 것이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 고학 끝에 일본에서 석사까지 졸업한 O씨는 자신의 꿈을 향해 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1990년대 전반에 도일한 조사협력자들의 경우는 부모세대가 동북3성의 도시호구를 가진 간부직 출신들로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꿔 말하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심화되면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한국행이 가능해졌어도 일정한 연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노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계획경제체제를 취한 중국에서는 도시호구와 농촌호구의 경제적 혜택의 차이가 매우 커서 S씨의 말에 따르면 그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했다”고 한다. 다음의 설명은 가정환경의 가난함, 사회적 관계의 빈약함, 신체적인 취약성 등의 요인들이 얹힌 끝에 국제결혼이란 형태로 도일한 조선족 여성의 생활사 연구²⁸에서

28 林梅, 「〈与えられた選択〉としての国際結婚: 日本に嫁いだ中国朝鮮族女性の生活史を中心に」, 『東アジア研究』,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2014, 106쪽.

중국의 사회제도 특유의 호구제도를 설명한 글이다. 본 연구의 문맥에서도 중국의 호구제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므로 아래에 인용한다.

1950년대에서 1980년 중반까지 중국은 계획경제체제를 취하고 사람들의 일과 생활은 ‘단위제도’(單位制度)에 따라서 규정되었다. ‘단위제도’란 생산과 생활물질의 공급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직장을 뜻하는 ‘단위’를 통해 개인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가 제정한 호적관리 등의 제도도 직장이 집행한다. 즉 ‘단위’가 개개인의 생활을 지탱하기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中華人民共和國戶籍登錄條例)의 제정 직전인 1957년 12월, 국무원은 ‘농민의 맹목적인 외류의 제지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거기에는 “각 단위에서 공장직원이나 임시 공장직원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도시호적을 먼저 채용한다. 농촌호적자를 채용할 경우 지방노동기관과 농촌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농업생산합작사가 조직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각 지방노동기관과 감찰부문(監察部門)은 엄격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직업은 호적과 엄밀하게 연결되고 도시호적자는 생활을 돌보는 ‘단위’에 속하도록 되어 식량배급과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반면 농촌호적소유자는 취업은 물론 도시에서의 상업 활동도 일체 금지되었다. 또한 인민공사라고 하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농업에 종사했다. 생산물은 계획적인 배급을 위해 국가에 의하여 ‘매수되어’ 있었고, 정비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²⁹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1990년대 전반에 도일한 조사협력자 부모세대들은 중국에서도 도시호구를 가진 간부직으로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모세대, 즉 농촌호구를 가진 농업종사자나 일반 공장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29 조선족의 이동과 중국의 호구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바람. 宮島美花, 「中国朝鮮族の移動と中国の社会保障: 戸籍制度と〈單位〉制度から」, 『北東アジア地域研究』 20, 2014.

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학생으로 독일 경험이 있는 본 연구 데이터 중 11명(J, K, L, N, P, Q, R, T, U, V, W씨)의 부모들이 이에 해당하며, 한국행을 통해 일본으로 유학한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며 뒷바라지를 한 사례로 확인된다.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전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V씨(1970년대생, 여성)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V씨의 부친은 한중수교 이후 3년이 지난 1995년, 호적을 중국에 둔 채 가족을 남기고 한국으로 왔다. V씨와 그 아래 남동생은 연변에 남은 모친이 키웠는데, 남동생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모친도 한국으로 왔다. 중국에서 모친은 무역관계 국영기업에 다녔고 부친은 은행직원으로 일했으나, 한국에서는 입국수속을 위한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좀 더 조건이 좋은 직업은커녕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부친은 건설현장에서, 모친은 식당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막노동을 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한국생활을 힘들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모친이 한국에 입국한 1999년은 한국에서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어 재외동포를 둘러싼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던 시기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조선족의 위상과 생활은 열악하고 어렵기만 했다.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벌고 또 벌었으며 조금씩 모은 돈은 달마다의 빚 상환금과 V씨의 일본 유학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V씨는 남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모친이 한국으로 이주한 이듬해인 2000년, 거둬 시도한 끝에 받아낸 대학입학허가서를 안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6개월에 한 번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한 돈은 학비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V씨처럼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일본 대기업에 취직한 조선족 남성을 만나 1년 만에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출산, 육아 등 가정주부생활에 전념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에 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다언어구사 능력을 갖춘 동아시아 업무 담당 회사원으로 인정받으며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한국생활이 거의 20년이 된 부친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조부모 고향이 남한이라 호적이 남아 있던 모친은 국적을 회복했으며, 중국 대도시에서 취직한 남동생은 예전대로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미 V씨는 일본국적 취득자이므로 V씨 직계가족은 “다국적 가족”이라는 특징도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는 V씨 이외 다른 조사협력자들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즉 V씨의 사례에서 확인된 가족 분산의 양상은 일본에서의 조선족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의 고달픈 노동생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녀들은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시도하면서 부모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에 보답하려고 애쓴다.³⁰

5. 제도를 누비는 가족 재결합의 양상

여기서 잠시 보류해두었던 물음을 다시 확인해보자. 일본의 조선족사회 다양화, 계층분화, 차세대의 등장과 교육에 관한 실천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유학생 신분의 도일 그 자체는 단신으로 입국한다는 형식상의 차원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일반적인 노동이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이동지역인 일본 정착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가족 재결합의 동태는 엄연히 다르다. 유학을 거쳐 일본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적어도 20년이란 세월이 필요하며 가족 재결합의 모습도 다양하다. 분명히 조선족의 특수한 맥락인 가족 분산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황과 조건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 재결합의 양상은 도일 연도와 도일 경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전술한 것처럼 1990년대 후반에 도일한 조선족 유학생이 학업을 끝내

30 조선족의 대이주를 특집으로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사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다. 「조선족 대이주 100년 한·중·미·일 4개국 현장 보고: <2부> 유랑 ② 엘리트의 탄생」, 『한겨레신문』 2011. 11. 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6172.html (2015. 12. 23 검색)

고 일본에 정착하는 경우, 고향을 떠나 중국의 연해도시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물론 단신으로 도일하여 유학 중에 가정을 꾸리거나 취직 후에 결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민국가가 아닌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적인 통합정책이 전무하다. 1992년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2000년의 제2차 개정을 거치는 등 법제도상의 변화는 있어도 여전히 통합정책은 전무하다. 고급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단순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이 여전히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조선족들은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의 재결합을 실현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종종 활용되는 수단은 부모들이 3개월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한 번만 허용되는 연장신청으로 6개월 동안 일본에 체류하는 방법이다. 1998년에 도일한 W씨(1970년대생, 여성)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조선족 IT기술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결혼하기 전 자신의 유학을 위해 온갖 고생을 하신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부모님을 일본에 모시고 싶었으나, 아직은 여건이 안 되어 결혼 직후에 한 번, 출산 전후(첫째를 낳은 2004년과 둘째를 낳은 2006년)에 한 번씩,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서 한 번, 총 네 번(2년간)에 걸쳐 소원을 이루었다. 2015년 현재 부모님은 상하이(上海)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남동생 부부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향집에 계시지만, 향후 조금 더 편하게 일본에서 모실 수 있도록 국적 취득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3개월 단기비자로 두 번 도일한 경험이 있는 중국거주자 G씨(1950년대생, 여성)는 자식을 따라 일본에 간 부모들의 생활은 “일본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며 호강하는 생활과 한국에서처럼 막 노동을 하게 되는 고달픈 생활의 두 가지 양극이 있다”고 한다. 부모들이 바라는 건 물론 전자의 생활이고 유학을 보낸 목적도 역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함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G씨의 경우 첫 번째 도일한 2010년 당시 딸이 대학을 나왔지만 아직은 정규직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평일에는

조선족 가게의 주방 일을 하고 휴일에는 이른바 ‘공장’³¹에서 하루에 14시간씩 재봉틀을 밟았다. 두 번째 도일한 2012년에는 딸이 직장을 다녀 생활이 안정되었기에 불법노동도 면할 수 있었다고 안도의 숨을 돌렸다.

2000년에 도일하여 일본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외자기업에 전업한 U씨(1970년대생, 여성)는 도일할 때 이미 형제와 부모가 고향인 동북3성을 떠나 연해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도일 연도에 맞춰 결혼한 U씨는 일본에서 취직, 결혼, 육아 등을 경험하면서 최대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단기비자로 부모를 거듭 초청하면서 가족 재결합을 시도해왔다. U씨 세대는 이미 중국에서 중학교 때 한중수교를 맞이했고 대학에 다니면서 “남조선”이 “한국”으로 변화는 과정을 겪었다. 남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을 경험했고, 유학은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을 선택했다. 15년이 넘도록 한국 생활을 오래 하신 시부모님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일본행은 좀 더 수월해졌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부모세대가 도일한 딸자식 가족들과 함께하는 재결합의 양상은 일본의 조선족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기비자로 도일하는 이외 또 다른 가족 재결합의 방법으로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얻는 방법이 있다. 그중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고령자 가족을 불러들일 때는 “고시의 특정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³² 1996년에 도일한 후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현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R씨(1960년대생, 여성)는 이 “특정활동” 자격을 활용해 7년 반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연령(65~70세), 본국에 가족이 없을 것, 건강상의 문제 등 세 가지 조건과 함께 딸자식의 경제적인 안정과 부모

31 樵香淑, 『移動する朝鮮族: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188~192쪽(권향숙, 신종원 옮김, 『이동하는 조선족: 소수민족의 자기통치』, 164~168쪽)을 참조 바람.

32 ‘특정활동’이란 법률상 범무대신이 각 외국인에 대해 다음 네 가지에 해당되는 자에게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이라 정의된다. (1) 특정연구 등의 활동, (2) 특정정보처리활동, (3) 특정연구 등의 가족체류활동 혹은 특정정보처리가족체류활동, (4) (1)에서 (3)까지의 활동 이외의 활동. 또한 (4)는 ① “고시특정활동” 및 ② 고시의 특정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본문에서 언급한 R씨는 (4)의 ② 고시의 특정활동의 자격으로 체류했다.

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모든 서류 심사를 통과해 일본에서 생활한 R씨의 어머니는 앞서 언급한 G씨가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호강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³³

유학생이 아니라 IT기술자로서 2002년 일본에 도입한 X씨(1970년대생, 남성)는 당초에 이 “고시의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부모를 초청했다. 그러나 2004년 창업하여 ‘투자·경영’ 비자를 취득하면서부터는 유학생 출신으로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조선족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한중일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다국적기업 회사를 설립했다. 물론 회사 설립은 기업 활동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가족들을 회사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좀 더 쉽게 가족 재결합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에 도입한 T씨(1970년대생, 남성)의 경우 중국에서 대학을 중퇴하여 도입한 후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다녔다. 일본에서의 창업이 목적이었으므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나름대로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2007년 첫 가게를 오픈했다. 현재 그룹경영을 시도하는 중인데 그 숨은 목적은 “가족들이 모이는 조건을 마련함”에 있다고 한다. 현재 T씨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6. 맺으며

이상 본론에서는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조선족의 도일을 살펴보고, 사반세기가 넘는 일본행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부모 세대의 특징, 그리고 일본에서의 가족 재결합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

33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체류자격은 ‘단기체류’ 비자로 도입하고 난 후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일정한 기간 체류 경험이 있어 일본에서의 정착성이 인정될 경우 ‘정주자’의 자격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 데이터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현재 ‘정주자’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족고령자도 적지 않다.

구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조선족의 도일과 오늘날 일본에 형성된 조선족사회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즉 1990년대 후반 이후 조선족 유학생의 도일 배경에는 한국행을 선택한 부모세대의 고단한 삶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조선족의 일본행과 한국행은 한 가족 내의 세대 간에 동시에 진행되는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족 분산을 전제로 한 재결합은 바로 조선족의 생활실천을 의미하며 그 함의는 국가적인 관점을 벗어나 지역적이며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조명됨으로써 부각되는 ‘무엇’임에 틀림없다. 이 ‘무엇’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 분석과 실태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이 글을 맺으면서 그 내역을 ‘초국적 가족 혹은 집안’(transnational families or households)³⁴의 생존전략이자 생활실천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1990년대 이후를 다루었지만 현시대 재이동을 통해서 관찰되는 조선족의 생활실천에 관해서는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이주 초기 옛 ‘간도’지역에 존재한 전통적인 ‘과경생활권’(跨境生活圈)³⁵의 확대, 다시 말하여 전근대적 이동에서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시각

- 34 여기에서는 파레냐스(Rhacel Salazar Parreñas)가 말하는 ‘transnational families or households’의 개념(주요 가족원들이 적어도 두 개의 민족국가에 속해 있는 경우를 지칭함: Rhacel Salazar Parreñas,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Domestic Work*,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 80;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문현아 옮김,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 2004, 133쪽)을 답습할 것이다. ‘household’란 용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구’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고에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해서” 번역 책에서는 “가족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22쪽) ‘가구’ 대신 ‘집안’으로 번역한 파레냐스의 책 역사 문헌아를 따라서 ‘집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 35 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 물건, 돈, 정보가 이동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생활영역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과경민족’(跨境民族)의 ‘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 개념을 제시한 스칼라피노(R. A. Scalapino)의 논의를 감안하여 쓰루시마 세쓰레이(鶴嶋雪嶺)가 언급한 설명(鶴嶋雪嶺, 『豆満江地域開発』, 関西大学出版会, 2000, 9쪽)을 조선족의 근현대 이동사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제시한 조어다. ‘과경’의 ‘경’(境)은 주로 국경을 비롯한 경계(border)를 일컫지만 전근대적·근대적·현대적 국경의 본질적 특성과 그 질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데 함의가 있다. 개념화의 과정은 다르지만 천상밍(Chen Xiangming)이 사용한 ‘transborder subregion’에 해당되는 ‘과경권역’(跨境圈域)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신현준, 「두만강 과경권역(跨境圈域)의 ‘개발’과 조선족의 이동성: 월경적 사회자본과 복수의 경계넘기/이웃하기」, 『中國現代文學』 제64호, 2013, 118쪽). 단 후자는 ‘두만강 개발’이라는 1990년대 이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 현대적인 현상을 두고 정리된 개념이고, 전자는 전근대적인 상황을 고려한 역사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있다.³⁶ 국경을 쉽게 넘어서고 제도를 누비며 가족의 재결합을 시도하는 그들의 생활실천은 조선족의 이주 역사 맥락에서도, 현시대 일본국적의 취득이나 중국호적의 활용이란 국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³⁷ 이는 이민의 특성이나 사회적 상승이동의 집념이란 관점에서 설명되기도 하고,³⁸ 조선족사회가 한반도의 빈민층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어왔던 점에서 조명되기도 한다.³⁹ 즉 역사적인 ‘이동의 문화’의 발현으로서의 재이주라 할 수 있으며⁴⁰ 그 과정에서 일상화된 가족 분산의 맥락과 가족 재결합의 모습들이 보인다.

조선족가족의 재결합은 2015년 8월 9일에 진행된 ‘재일중국조선족운동회 2015 in Tokyo’에도 그 동향이 여실히 반영되었다.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단체들⁴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운동회에는 지금까지 도쿄나 오사카에서 각 단체가 50~70명 규모로 진행해왔던 행사와 달리 무려 1500명 가까운 인원⁴²이 참가하였다. 이는 이주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경기 종목, 출점한 민족음식점, 문예공연 프로그램, 스폰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대했다. 무엇보다도 만나질 사이에 그처럼 많은 조선족이 한곳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특기할 만하다. 대회장⁴³에

36 権香淑, 「朝鮮族の移動と東北アジアの地域ダイナミズム: 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逆説」, 『北東アジア地域研究』, 島根県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 2011.

37 権香淑, 「移動する朝鮮族と家族の分散: 国籍・戸籍取得をめぐる〈生きるための工夫〉」, 甲斐田万智子・佐竹眞明・長津一史・幡谷則子 編, 『小さな民のグローバル学: 共生の思想と実践をもとめて』, 上智大学出版会, 2016.

38 韓景旭, 『韓国・中国系朝鮮人=朝鮮族』, 中国書店, 2001, 26쪽; 原尻秀樹, 「東アジア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再考: 朝鮮半島からの移動」, 『アジア遊学81 東アジアのグローバル化』, 勉誠出版, 2005, 86쪽.

39 伊藤亜人, 「延辺朝鮮族における周縁性とエスニシティ」, 『中国朝鮮族の移住・家族・エスニシティ』, 東方書店, 2001, 32~33쪽.

40 이와 같은 조선족의 ‘이동의 문화’에 대해서는 조선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코리안에게도 부연할 수 있으며, 글로벌화하는 세계에 대한 생활자로서의 적응가능성의 양상을 띠고 지적되고 있다. 松本誠一, 「ネーション・グローバル化・跨境: 韓国の挑戦, 生活者の適応」, 韓国・朝鮮文化研究會,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 14号, 風響社, 2015, 25쪽.

41 공동주최 단체는 재일조선족축구협회, 재일조선족여성회, 재일조선족골프우호회, 재일조선족경영자협회, 조선족연구학회, 천지협회, 연변대학일본학우회의 7단체.

42 ‘1500명 가까이’라는 숫자는 재일중국조선족실행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다. [http://kcsej.com/\(2015. 12. 23 검색\)](http://kcsej.com/(2015. 12. 23 검색))

43 운동회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의 운동장, 앞마당, 식당, 문화회관 등에서 진행되었다. 최대 규모의 운동회 개최는 조선족의 재이주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이기도 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재결합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제공한다.

는 체류기간이 30년이 넘는 제1세대와 일본 출생의 제2세대가 참가하고 중국과 한국에 분산 거주하는 조선족 고령자들까지도 포함해 3세대 가족단위로 참가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 재결합의 모습이 반영된 말 그대로 일본의 조선족사회의 현주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족의 분산과 재결합의 동향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⁴⁵ 특히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화가 사람, 물건, 돈, 정보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한편,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사람의 이동을 유발하는 경제적 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 다언어구사 능력을 가진 조선족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⁴⁶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의 조선족이 지니는 역할은 단지 국가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주체로서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 분산과 재결합을 시도하는 조선족의 초국적 가족이 어떤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을지, 가족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 가족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분산이 일반적인 가족공동주거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44 행사 자체가 50개가 넘는 조선족기업과 조선족 유지들의 기부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점은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이다. 협찬액은 기업당 10만 엔까지로 제한되었고, 기타 경품이나 당일 소요된 비품도 모두 조선족 유지들의 기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재일조선족사회의 다양화와 계층화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일본사회에서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축적되어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45 본고에서 살펴본 양상을 가령 “‘보이지 않는 소수자’의 정주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비교이민연구의 관점에서 일제 브라질인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리 및 개념화된 “얼굴이 안 보이는 정주화”(顔の見えない定住化) 과정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검토와 비교 분석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시장, 이민 네트워크가 키워드인 “얼굴이 안 보이는 정주화” 개념은 분명히 조선족의 도일과 일본에서의 사회 형성을 논하는 데 중요한 용어가 될 것이나 본문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invisible’이란 똑같은 영어로 번역되는 비슷한 용어는 두 집단의 정주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교 분석과 해석, 그리고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언급할 것이다.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 『顔の见えない定住化: 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ネットワーク』, 名古屋大学出版会, 2005.

46 한 인제소개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취직한 중국인등록자 중 80%가 조선족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있다. 『日本でがんばる外国人の仲間たち』, 『Global Community』(2009. 12. 22) http://www.yokosojapan.net/article.php/editor_%E5%A4%96%E5%9B%BD%E4%BA%BA_ja(2015. 12. 23 검색)

있는지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또한 부모세대의 한국으로의 노동이주와 일본으로의 유학이동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족의 도일 동기와 역사는 매우 다층적이고 다양하다. 따라서 조선족의 도일 및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전략에 관한 해석의 여지도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와 분석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